

그 일그러진 像

공연일시

2007.11.3(토) 오후 6시

공연장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주최/주관 박성호무용단

공연후원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삼호그룹, 투맨



도자기핸드페인팅 Cera Art 본점

공연문의

051-621-1289, 620-4964
010-7197-4102

격려사



이영희

경성 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새알춤 예술감독

예술은 표현을 수단으로 한다.
표현을 위한 움직임은 살아있는 생명체만이 가능하다.
무용은 인간의 실체를 표현하는 움직임이다.

그런데 그 움직임을 관장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식작용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
무용인이 자유로운 신체 연마와 더불어 심도 깊은
정신의식의 개발에 주력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오늘 자신의 세계를
무대에 펼쳐 보이는 박성호의 무용은
바로 이러한 신체의 테크닉 연마와
정신세계를 결집시킨 결정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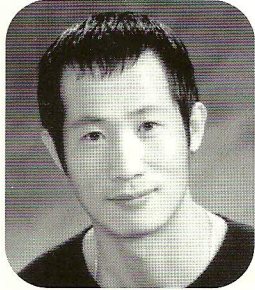
그의 춤은 힘찬 한국의 멋과
남성의 역동적인 힘이
그만의 특유한 미적 요소와 함께
오랫동안 삶 속에서 연마되어 왔기에
오늘 그의 몸짓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크다.

큰 박수로 그의 비상(飛上)을 축하한다.

2007년 11월

경성대학교 무용과 교수 이영희

모시는 글



박성호

현) 부산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외래 교수
부산 경성대학교 교육학 박사과정

전) 부산 시립 무용단 단원

새알춤회 대표

브니엘예술 중, 고등학교 강사

부산 KBS콩쿨 한국무용 창작 부문 금상 수상

부산 광역시 지원 2002~2003 영국 런던

The Place college performance workshop

course practice for dancer course 해외연수

노랗게 물들어가는 은행잎에 걸린
나즈막한 햇살을 보면서
햇살이 좀더 게으름을 부렸으면 싶은데
얼마나 종종걸음인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조금만 더디게 가주었으면 싶은데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저 혼자 후다닥 세월을 건넵니다.

연습실에 가는 길은 너무나 익숙한 길인데도
가끔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내 춤에 내 삶이 녹아있지 않은 것인지…….

오랫동안

믿어주며 기다려준 많은 분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제 삶이 녹아있는 몸짓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셔서

떠오른 태양과 같은 환희도 보시고,
자작나무 숲길을 걷는 평안함도 보시고,
지는 노을과 같은 서글픔도 보시기를…….

2007년 11월

박성호

그 일그러진 像

작품내용

이 작품은 한남자의 걱정적인 삶의 비극을 담은 작은 이야기이다. 작품 속에서 보게되는, 짧지만 결코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짧은 사내의 삶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간절히 바라는 진실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여정을 거치게 된다 사내와 부대끼게 되는 작품속의 여인은 이른바 반사회적인 인물로서 사내의 출세욕을 더욱 부추기는 역동적인 역할도 하지만, 결국 그 사내를 파멸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사내와 여인의 관계는 교미를 막 끝낸 사마귀와 같다. 암컷과 수컷 사마귀는 혼신의 힘을 다해 일을 치른다. 그리고 교미에 거의 탈진하다시피 한 암컷 사마귀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교미 순간에 몰입해 있는 수컷의 몸을 서서히 먹어치우기 시작한다. 수컷이 이를 알아차렸을때는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상태다. 사마귀의 교미와 그리고 한쪽의 생존을 위한 나머지 한쪽의 잡아 먹힘- 그 휘열 끝에 오는 처절한 죽음의 잔치가 작품속의 사내와 여인이 치루는 파멸의 축제와 닮아 있다.

사내는 파멸의 축제를 공동의 무덤터를 만들고자 한다. 피의 복수를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사내의 복수의 문턱에서 순결한 자아의 태곳적 모습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 올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용서하고자 그리고 새롭게 탄생한 또 다른 자아와 화해하고자한다. 그것을 예비해준 이 세계와 타협하고자 자신의 욕망을 비워나간다.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작품의도

이 작품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하고자 한 것이다. 보통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본원적인 힘- 그것은 끝없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어머니자궁-과도 같은 태곳적 평온함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참된 삶의 모습이자, 살아가가면서 깨닫게 되는 생의 진실이다. 그리하여 그것을 찾고자 하는 의미 있는 일탈 행위임을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된다.

프롤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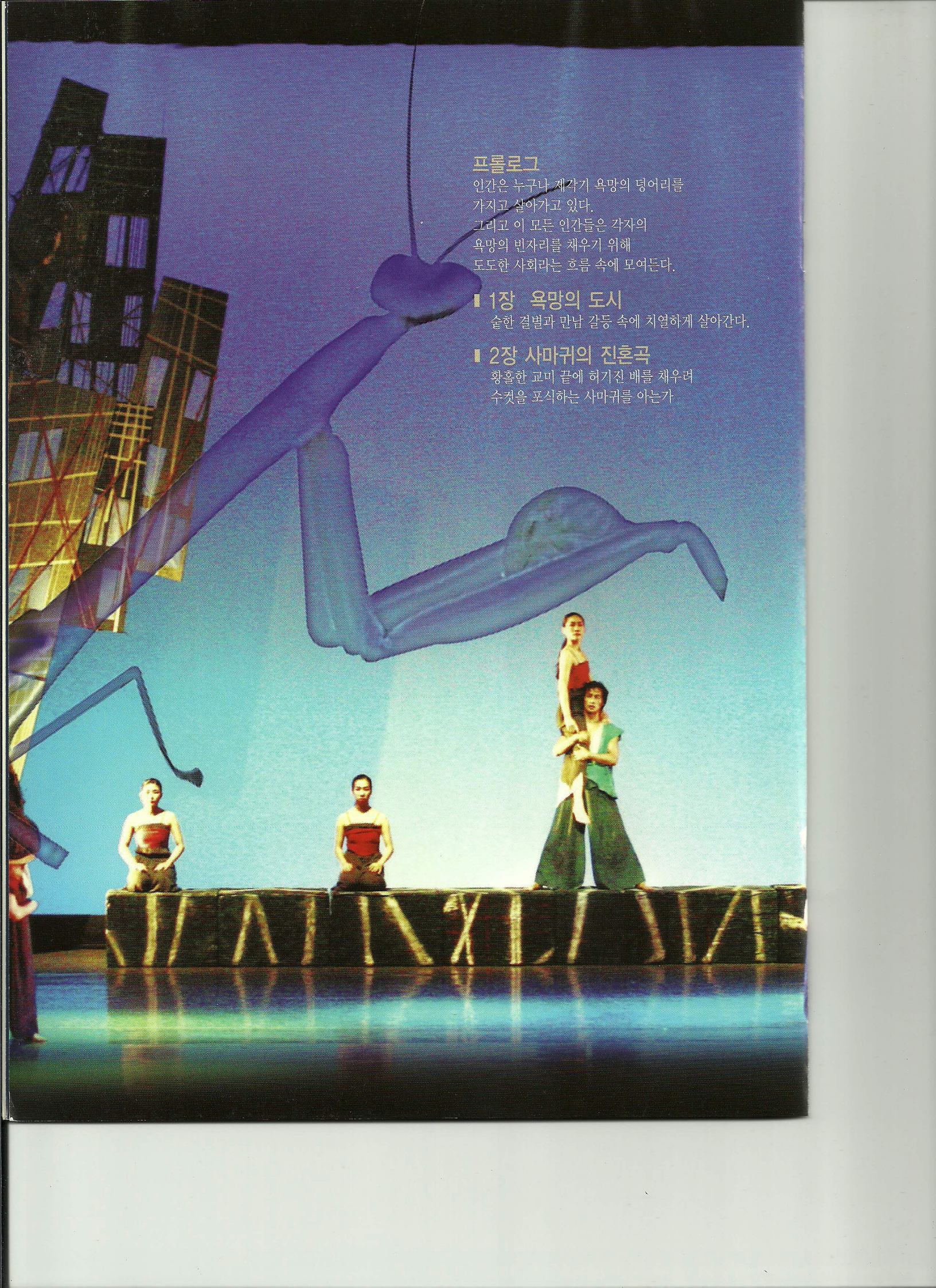
인간은 누구나 제각기 욕망의 덩어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인간들은 각자의
욕망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도도한 사회라는 흐름 속에 모여든다.

■ 1장 욕망의 도시

술한 결별과 만남 갈등 속에 치열하게 살아간다.

■ 2장 사마귀의 진흔곡

황홀한 교미 끝에 허기진 배를 채우려
수컷을 포식하는 사마귀를 아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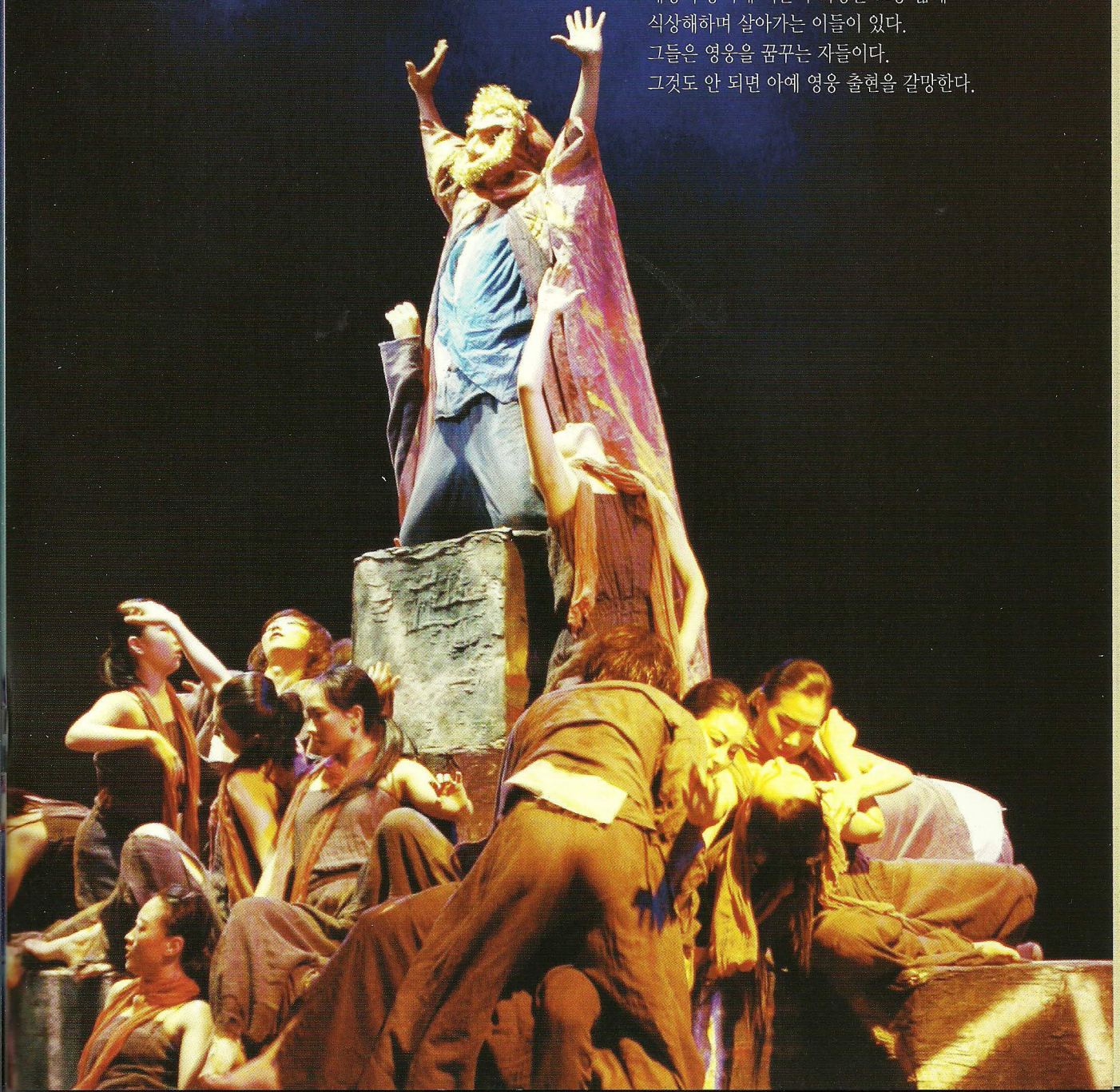
그 일그러진 像

■ 3장 그리고 나

분노와 배신감으로 광란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서서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잿빛 강을 본다.
그곳에서 난생 처음 새 세계를 경험한다.
용서와 화해를 위해 고통의 수고조차
마다하지 않는 참 세상을.....

■ 4장 또 다른 욕망의 도시로

세상의 충격에 이끌려 이랑을 보통 삶에
식상해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영웅을 꿈꾸는 자들이다.
그것도 안 되면 아예 영웅 출현을 갈망한다.



그. 일그러진

像

■ 5장 또 다른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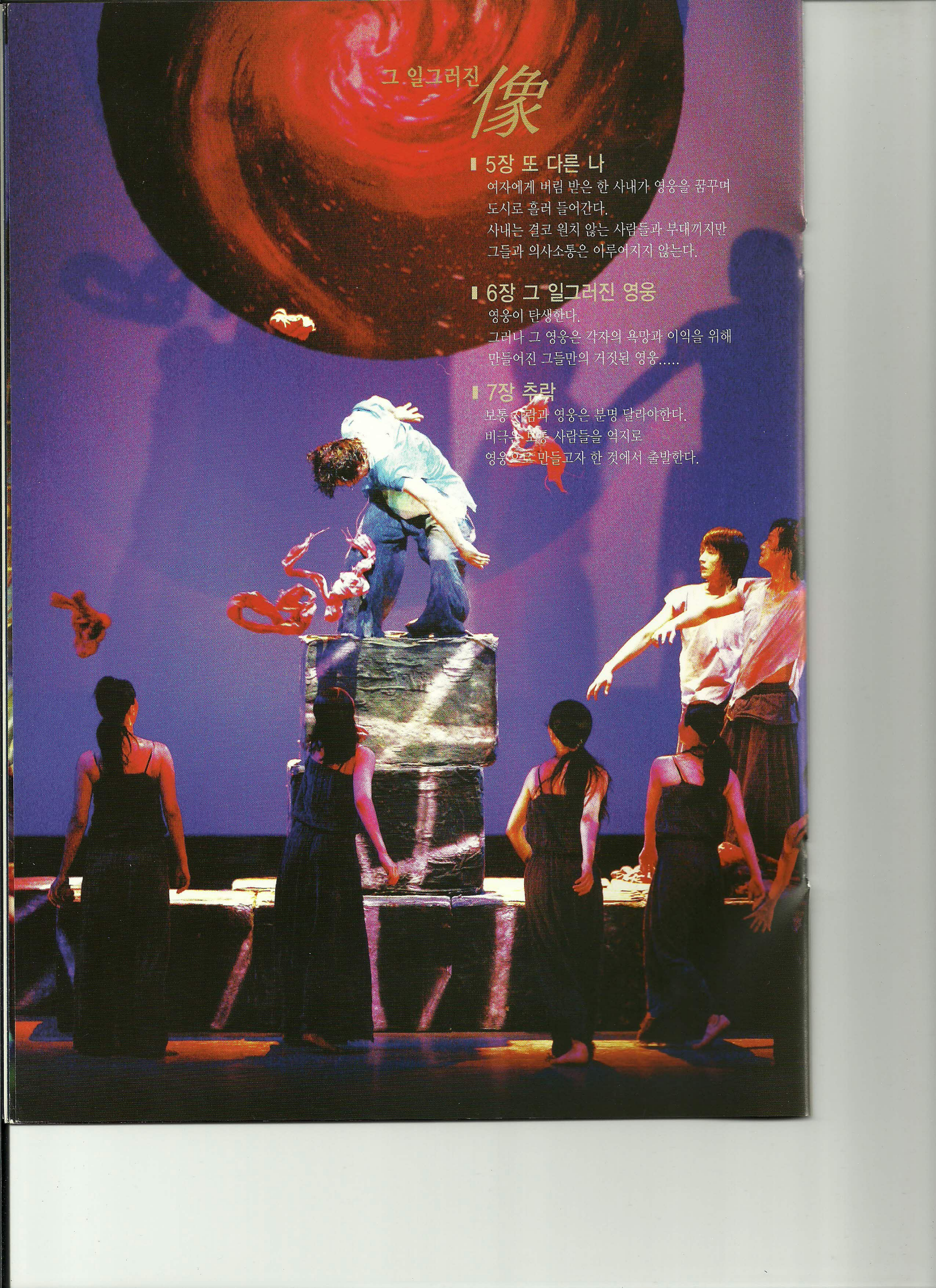
여자에게 버림 받은 한 사내가 영웅을 꿈꾸며
도시로 흘러 들어간다.
사내는 결코 원치 않는 사람들과 부대끼지만
그들과 의사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 6장 그 일그러진 영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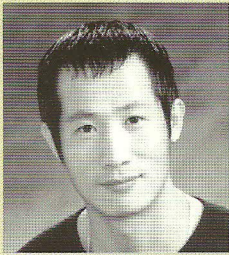
영웅이 탄생한다.
그러나 그 영웅은 각자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그들만의 거짓된 영웅.....

■ 7장 추락

보통 사람과 영웅은 분명 달라야한다.
비극은 보통 사람들을 억지로
영웅으로 만들고자 한 것에서 출발한다.



출연진



박성호



김민경



김경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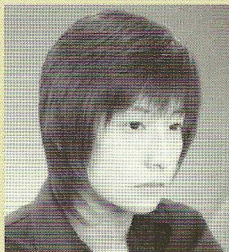
박광호



강수빈



최정화



손영일



신상규



박효인